

응모기간 : 2014. 2. 12.까지
응모대상 : 충북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선거이야기 만화공모전」 참고자료

※ 응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의 분야별 지정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한 칸 만화’ 또는 ‘이야기 만화’로 표현하여 제출하세요.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광장 홈페이지(www.necpr.go.kr)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세요】

분야1 사전투표 (1쪽 참고)

- 주제1. 사전투표소 내부의 풍경을 자유롭게 표현
- 주제2. 사전투표제도의 장점이 부각되도록 자유롭게 표현

분야2 투표 (2쪽 참고)

- 주제1. 투표소 내부의 풍경을 자유롭게 표현
- 주제2. 투표관리의 공정성이 부각되도록 자유롭게 표현

분야3 개표 (3~5쪽 참고)

- 주제1. 개표소 내부의 풍경을 개표진행과정 전체가 나타나도록 표현
- 주제2. 개표관리의 공정성 및 정확성이 부각되도록 자유롭게 표현
- 주제3. 개표소 각 부서의 역할을 표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는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현재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가서 본인 확인 후 투표하는 것입니다.
-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인이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를 발급 받아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앞으로 유권자는 선거일 말고도 사전투표기간 동안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이 됩니다.
- 사전투표가 종전의 부재자투표 또는 선거일 투표방식과 다른 점은?
 - ☞ 선거인의 본인확인 방법이 종이 선거인명부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 인쇄소에서 미리 인쇄하여 교부하던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직접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가능했던 투표를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 이렇게 합니다



* 주의하세요!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는 아래와 같이 공정하게 관리합니다.

- ✎ 투표 시작 전에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 속과 겉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하고 투표함에 잠금 장치 후 봉쇄·봉인합니다. 이때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전 과정을 확인합니다.
 ✎ **여기서 잠깐!** 참관인이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으로 투표를 시작할 때부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 ✎ 봉쇄·봉인 한 투표함에는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칩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투표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투표종료 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길 때에는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과 경찰관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 투표할 때 알아야 할 것!

- ✎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챙겨보세요.
- ✎ 잘못 투표하였다고 투표용지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표하세요.
- ✎ 투표의 비밀보장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촬영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인증샷)을 찍지 마세요.

투표!

이렇게 합니다



* 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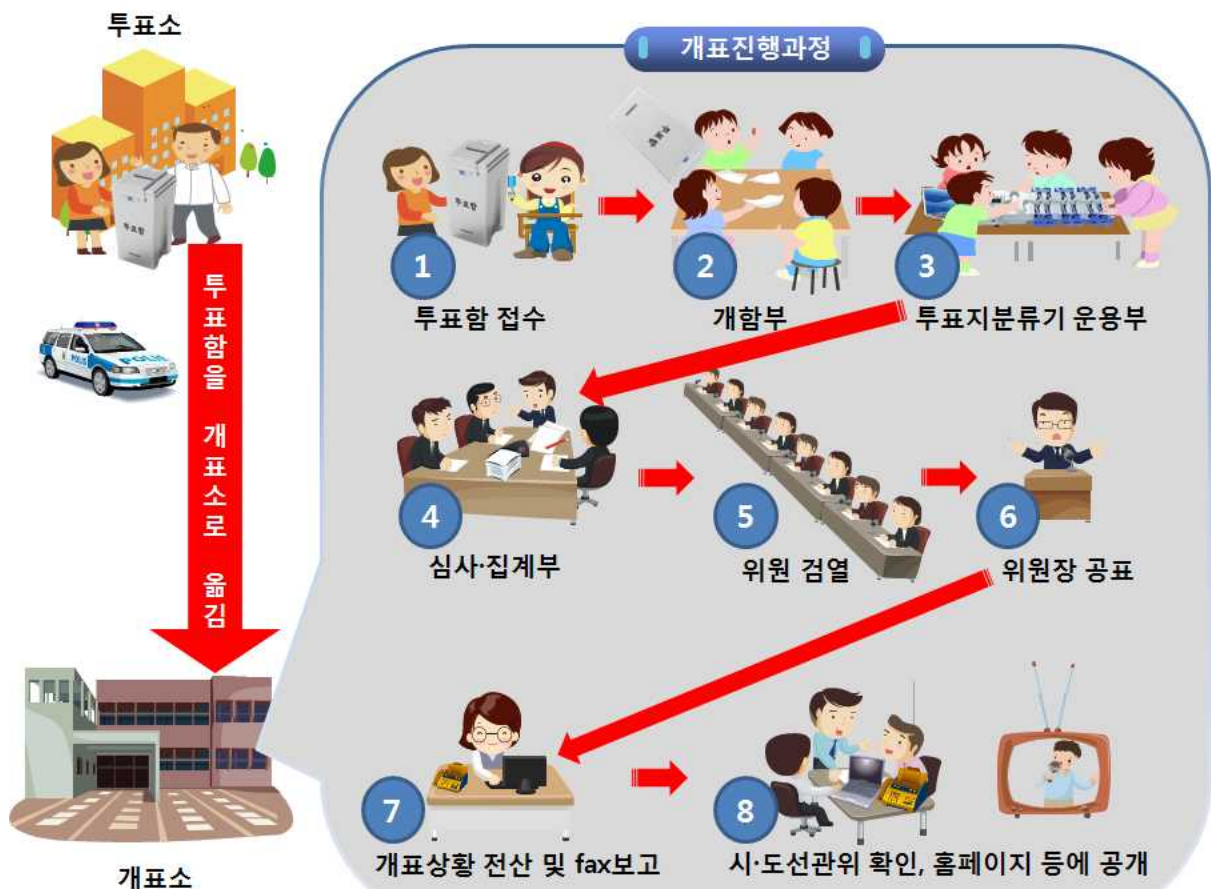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개표는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행위인 투표지를 확인하여 유효·무효를 판정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는 선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들인 시간과 비용·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소중한 의사를 반복 확인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하고 있습니다.
-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개표 전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 투표함(투표참관인·경찰 동행)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함 접수단계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개표장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전 과정을 감시합니다.
 - ✎ 개표사무는 투표함이 도착하면 접수를 거친 후 "① 개함부 ⇒ ② 투표지분류기 운용부 ⇒ ③ 심사집계부 ⇒ ④ 위원검열 ⇒ ⑤ 위원장공표 ⇒ ⑥ 개표상황 전산 및 fax 보고 ⇒ ⑦ 투표지 포장·정리"순으로 진행됩니다.
 - ✎ 개표사무는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학교·시(군)청·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된 개표사무원과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 취재·보도를 위한 언론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개표관람증을 발행받아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어 그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개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각 부서별 역할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 ① 개함부에서는 투표지를 투표함에서 꺼내 가지런히 정리하여 이를 투표지분류기 운용부에 인계합니다. 이때 심하게 구겨지거나 찢어진 것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모아 인계합니다.

☞ **여기서 잠깐!** 투표지분류기란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과거에 손으로 하던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작업을 대신해 주는 단순한 기계장치입니다.

- ② 투표지분류기 운용부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1차 분류합니다. 이때 심하게 구겨지거나 찢어진 것 등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집계하고, 투표지분류기가 자동으로 분류한 투표지와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중복기표, 구분선상 기표, 인주가 번진 기표 등 정상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모두 심사·집계부로 넘깁니다.

- ③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분류기가 유효로 분류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또 한번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재확인하고,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를 수작업 개표한 후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개표상황표 작성 후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합니다.

☞ **여기서 잠깐!** 개표상황표란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유효·무효로 구분되고, 후보자별로 집계되는 과정을 적는 서식입니다.

- ④ 위원검열석에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검열한 후 위원장에게 인계합니다.

- ⑤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검열·확인한 후 개표상황을 공표합니다.

- ⑥ 위원장 공표가 끝난 개표상황표는 별도의 보고용 PC를 통해 중앙선거위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시·도선거위에 FAX 전송하여 이중으로 대조·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개표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거위로 전송한 개표결과는 동시에 각 방송사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마다 전송받은 자료를 그래픽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⑦ 보고와 FAX전송이 완료된 후 후보자별로 구분된 투표지는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고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합니다.

개표소 풍경

☞ 개표장면 #1 : 개표는 아래 사진에서 번호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개표장면 #2 : 개표는 아래 사진에서 번호순서대로 진행됩니다.

